

조치원문화정원

도시의 재생, 공존의 근거

이은경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주)

대표

개요

위치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평리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기계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0,656m ²
건축면적	554.1m ²
연면적	554.1m ²
높이	지상 2층
설계	이은경, 김석현, 조지현
시공	동보건설(주), 성지(주)
설계기간	2018. 3.~2018. 8.
시공기간	2018. 12.~2019. 7.
건축주	세종특별자치시



하늘에서 바라본 조치원문화정원



흔적을 무대와 수반으로 살린 정원

생활의 필수적 대상이었던 정수장 물은
다양한 형태를 체험하고 즐기는 유희의 물로 재인식된다.
여과조의 흔적을 보여주는 샘물로,
배수로는 수생식물이 있는 수로로,
기존 바닥분수는 주변 벤치의 쉼터와 함께
물과 친숙한 장소를 제공한다.





외부를 반영하는 센터동



©texture on texture



©texture on tex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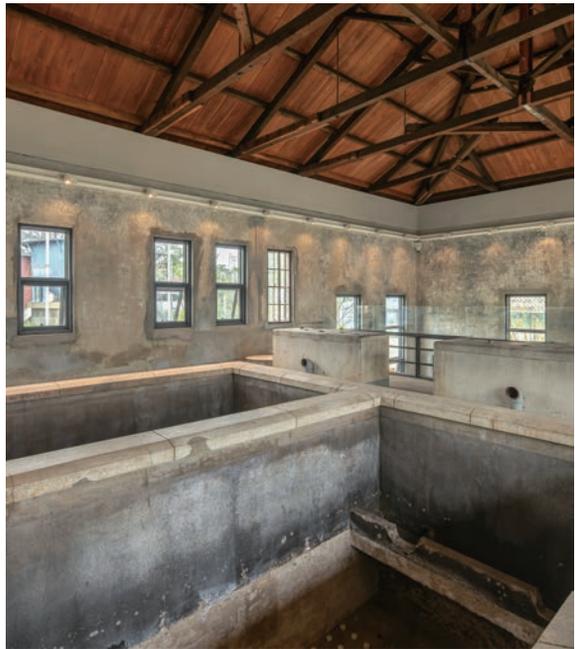


©texture on texture

상 센터동 내부
하 정원과 기억의 샘



©texture on texture



©texture on texture

상 전시동
하 이전의 모습이 보존된 전시동 내부



상 여과기 시설
 하·좌 다양한 이벤트를 담을 수 있는 저수조시설
 하·우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여과기 시설 내부

조치원문화정원에서의 경험은 정원에서
걷고 대화하고 관찰하는, 느끼며 작은 것들이 집합된 경험이다.
대상 부지는 도시의 경계지역으로서 지역 소공원 스케일과
지방도로와 하천의 스케일이 혼재된 상태이며,
이를 보행자 관점의 스케일로 공간화하였다.



©texture on texture

재생과 문화의 색을 꿈꾸며

조치원문화정원은 1935년부터 78년 동안 정수장으로 사용된 후 폐쇄된 시설과 담장으로 분리된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이다. 본래의 기능을 잃은 정수장의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고 도시정원이라는 새로운 장소적 가능성을 더하여 문화적 토양이 부족한 구도심의 활기를 되찾고자 하였다.

도시재생의 시작으로서의 '단(壇)'

발전이 정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문화의 토대가 될 '단(壇)'을 놓는다. 정수장과 근린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기억이 공존하는 기존 시설물들은 '단'의 재료이자 그 자체이기도 하며, 이에 새로운 '단'이 더해져 조치원문화정원에서 과거·현재·미래가 새로운 조합으로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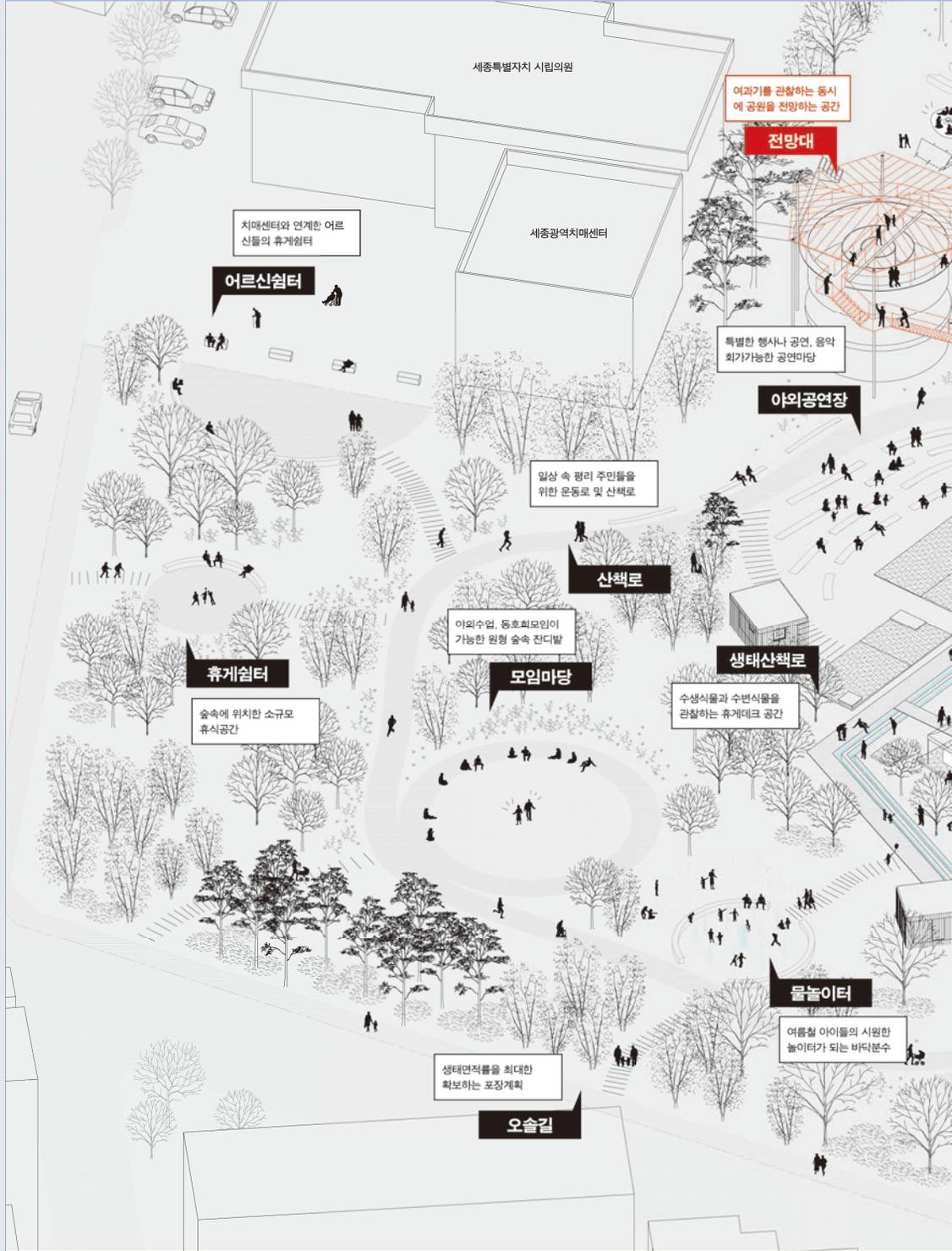
근대문화유산인 정수장 본관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형상 그대로의 보존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남기도록 하였다. 재생의 전략으로서 '비움'은 현재의 과도함을 절제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장소를 가득 채우며 무분별하게 확장되었던 물리적 흔적들의 상부는 철거하고 바닥으로 남겨지도록 하였다. 이는 과도한 산업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지역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여과기와 저수조는 물을 담던 공간적 크기가 유지되며 새로운 위치에서 접근하도록 하여 물의 흔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에게 의해 창조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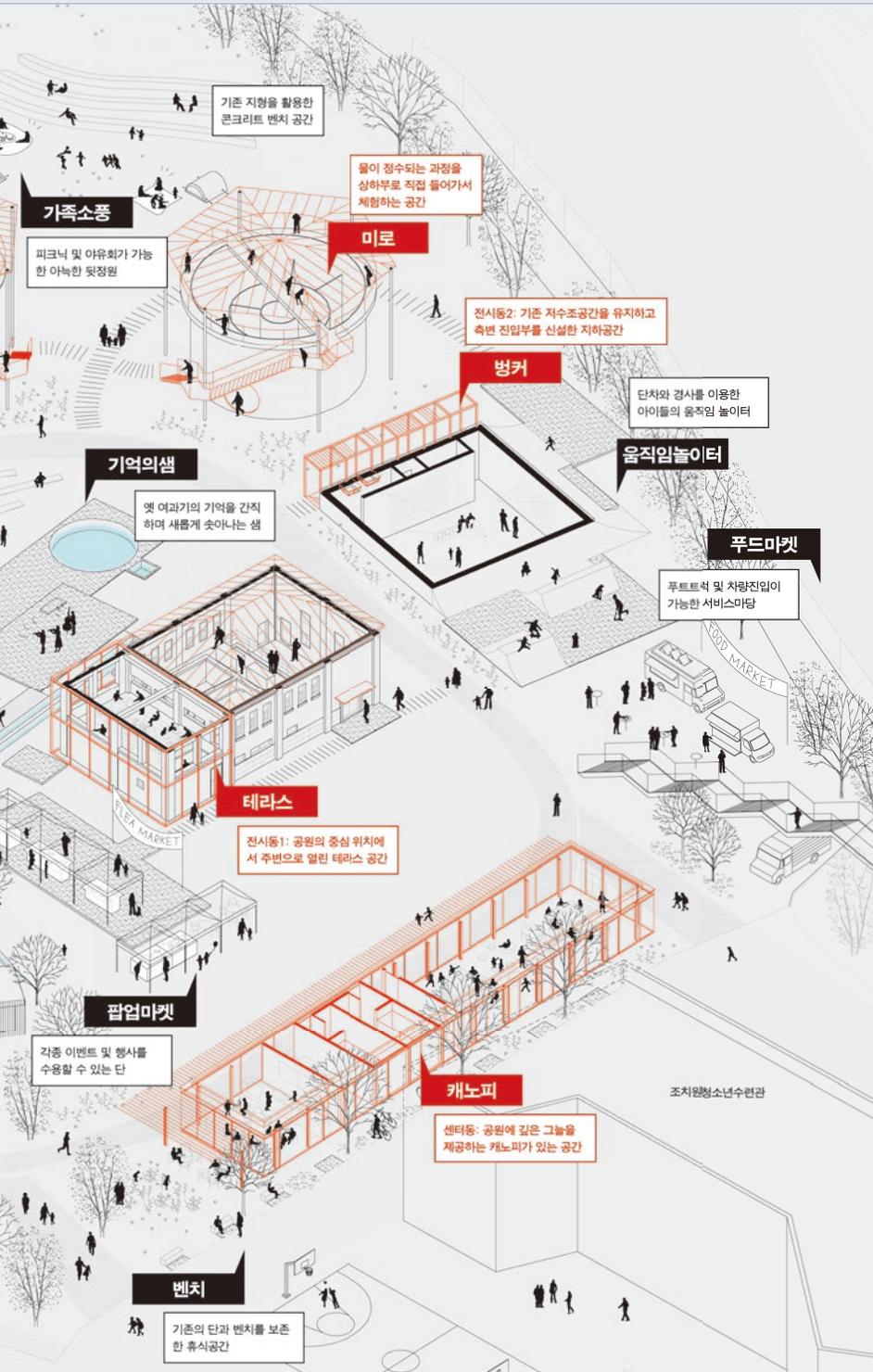
구축의 전략으로서 '대조'는 옛것과 새로운 것의 구조와 재료가 서로 다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 각각의 독립적 기능과 시대적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과거는 조적과 철근콘크리트 구조, 벽돌과 타일의 재료였다면 새로운 시설물은 철골구조와 유리 재료로서 시대상을 반영한다.

©texture on texture



상 하늘에서 바라본 조치원문화정원
중 전시동
하 이전의 모습이 보존된 전시동 내부







©texture on texture



상 내외부의 경계를 없앤 센터동
중 다양한 이벤트를 담을 수 있는 저수조 시설
하 여과기 시설

연속되고 친숙한 경험을 만든다

지상부의 건물은 정수장 본관과 여과기 2기만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었다. 필요한 시설은 하나로 통합되어 센터동이 되고 대지의 가장자리에서 정수장 본관 사이에 잔디마당을 두고 배치된다. 사람들은 루프형 산책로를 따라 대지 전체를 연속적으로 경험하며, 오솔길·마당·쉼터 등의 다양한 공간을 만나 선택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생활의 필수적 대상이었던 정수장 물은 다양한 형태를 체험하고 즐기는 유희의 물로 재인식된다. 여과조의 흔적을 보여주는 샘물로, 배수로는 수생식물이 있는 수로로, 기존 바닥분수는 주변 벤치의 쉼터와 함께 물과 친숙한 장소를 제공한다.

섬세한 덧댐을 통한 보존

센터동은 교육과 지원시설을 통합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 지어졌다. 목재루버로 내외부를 연속하여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없애고 깊은 그늘 ‘캐노피’의 공간을 만들었다. 유리 외피는 주변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정수장 본관과 기존 증축부를 붙여 전시동으로 구성하였다. 본관은 내외부 기존 재료가 보수되어 상설전시장으로 보존되고, 증축 매스는 구조부만 보전하고 유리 외피를 덧씌워 정원으로 전망이 열린 기획전시실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정원의 남겨진 콘크리트 기초를 무대로 활용하고 객석이 되는 벤치를 추가하였고, 폐수가 흘렀던 수로는 생태수로로 바뀌었다.

저수조 시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저수조 시설은 신설한 측면 진입부를 통해 접근되며, 물이 담기던 공간을 기억하고 이벤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덧대었다. 여과기 시설은 새로운 계단을 따라 오르며, 방향과 위치에 따라 공원과 도시를 조망하는 높이의 경험을 제공한다. 제일 높은 여과기는 내부가 보존되며, 폭이 넓은 여과기는 내부가 모두 철거되고 물이 담기던 전체 규모가 전시공간이 된다.

조치원문화공원 재생계획이 완료된 이후 마을공방이 증축되었는데, 센터동과 전시동 사이의 대지에서 마당을 공유한다.

과거와 현재, 자연과 문화, 일상과 휴식의 공존

조치원문화정원에서의 경험은 정원에서 걷고 대화하고 관찰하는, 느리며 작은 것들이 집합된 경험이다. 대상 부지는 도시의 경계지역으로서 지역 소공원 스케일과 지방도로와 하천의 스케일이 혼재된 상태이며, 이를 보행자 관점의 스케일로 공간화하였다. 루프의 산책로를 통해 분리된 기존 공원과 정수장 부지는 통합되고, 기존 수목은 보존되고, 새로운 수목은 더해져 연속된 경험의 공간이 된다. 관목과 계절초화류, 쉼터와 벤치, 수로 등 섬세한 배려가 더해진 스케일은 일상을 보내는 장소로서 휴식과 생태, 놀이가 공존할 수 있는 정원을 제공한다.

©texture on texture



상 마을공방
하 무대와 벤치가 있는 정원